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4.5km 전 구간 개통

입력 2016-11-09 18:47 수정 2016-11-09 19:37



서대문구가 12일 완전 개통하는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의 기존 개통구간을 시민들이 걷고 있다. 서대문구 제공

서울 서대문구 북한산 자락에 노약자나 지체장애인 등 보행약자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숲길이 열린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을 완공해 오는 12일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길은 흥은1동 실락어린이공원에서 홍록베드민턴장, 삼하운수종점을 거쳐 흥지문길 옥천암으로 이어지는 총 4.5km 구간으로 데크를 설치해 전 구간의 경사도가 10% 이내다.

바닥에 휠체어나 유모차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4.15km는 평평한 목재 데크로, 나머지 구간은 미사도로 조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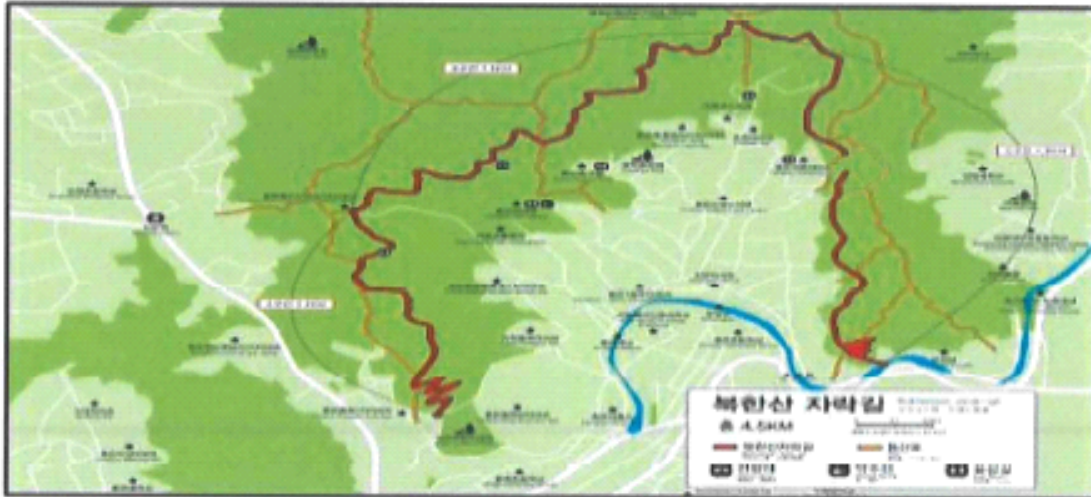
구는 야외무대, 전망대, 쉼터, 음수대, 화장실을 만들고 안내판도 설치했다.

구는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공사를 시비 51억5000만원을 투입해 3구간으로 나눠 진행했다.

2014년 4~9월 1차 구간(홍록베드민턴장~삼하운수종점) 1.5km를 부분 준공했고 2차 구간(삼하운수종점~옥천암) 1.8km는 지난해 8월 완공해 우선 개통했다. 이어 3차 구간(실

인쇄 | 위소

락어린이공원~홍록배드민턴장) 1.2km를 지난 6월 착공해 이번에 완공, 4.5km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됐다.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코스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에서 내려오면 홍제천 변 산책로로 이어진다. 홍제천 변 구간 1.5 km(옥천암~실락어린이공원)를 더하면 총 6.0km를 돌아 흥은1동을 한 바퀴 순환하게 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무장애 자락길 개통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북한산의 아름다운 숲을 즐기며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12일 오후 1시 홍록배드민턴장 옆 야외무대에서 전 구간 완공을 기념하는 개통 행사를 열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북한산 자락길 조성 경과보고, 테이블 커닝, 보행약자와 함께하는 자락길 체험 순으로 진행된다.

서대문구는 2013년 11월 안산 중턱을 한 바퀴 순환하는 약 7km 길이의 '안산 무장애 자락길'을 개통한 바 있다. 이 자락길은 주말과 휴일에는 서울 각지에서 하루 5000명 이상이 찾아올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COPYRIGHT BY KUKMINILBO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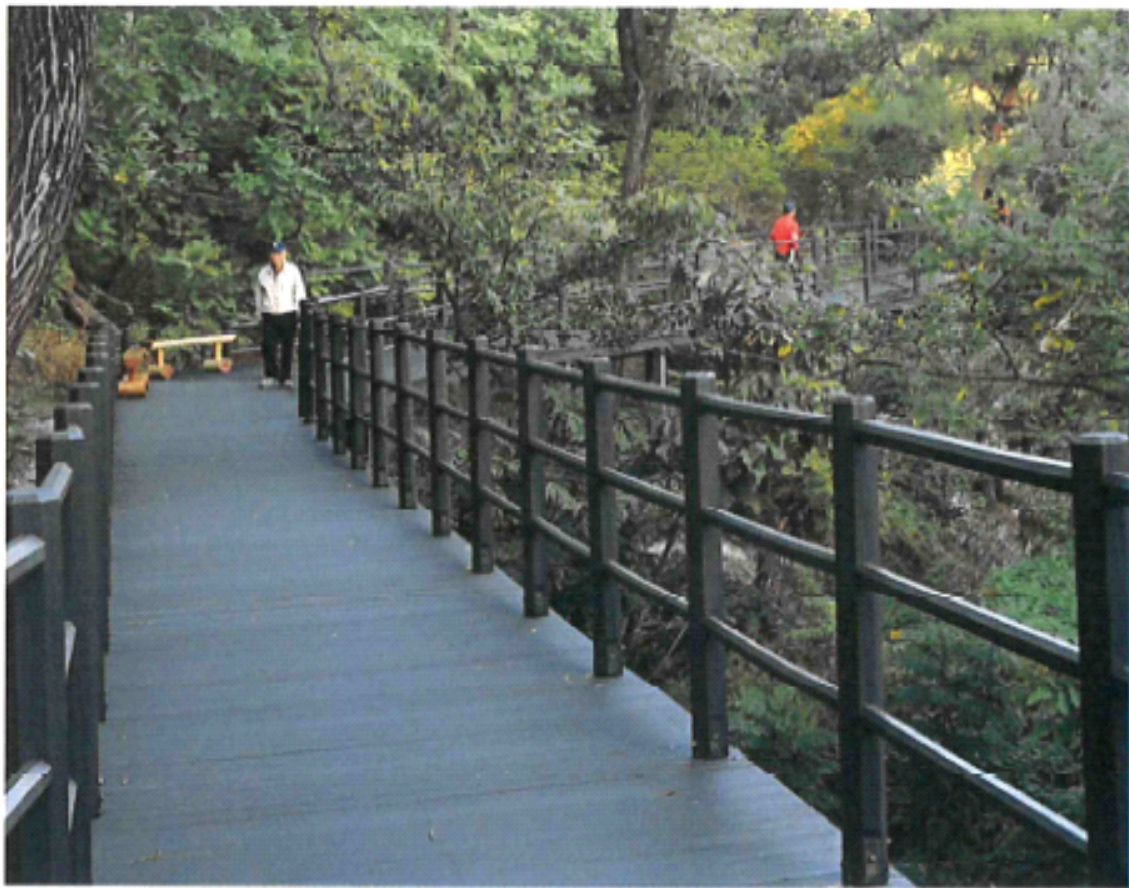
헤럴드

서대문구, 12일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완공

2016-11-09 10:34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12일 어린이, 장애인 등 보행 약자들이 편히 다닐 수 있는 북한산 부상에 자락길을 본공,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관내 실락이런이공원에서 종북배드민턴장, 삼하문수종경을 돌아 옥천암까지 모두 4.5km 구간을 경사도 10%이내 길로 만들었다. 4.15km는 평평한 친환경 목재 역으로, 나머지 구간은 마사토로 조성해 유모차·휠체어 등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쉼터, 야외무대 등을 설치해 편의도 높였다. 전체 예산은 시비로 약 51억5000만원이 들었다.

특히 일대 홍제천 변 산책로와 홍은1동 주변은 크게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순환형 구간으로 조성, 영종 산책길을 만들었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번 개통은 주변 자연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산림을 훼손하는 갯길 등산로도 본래 모습으로 복구되기 때문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무장애 자락길 개통으로 남녀노소 모두 북한산의 아름다운 숲을 만끽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완공을 기념하는 개통 행사는 12일 홍록배드민턴장 옆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테이프 커팅, 흥분1농 수반 농호회의 축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yul@heraldcorp.com

▲ 인쇄하기 × 닫기

Copyright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아시아경제 기사 프린트하기

프린트하기

✕

[지역] 서대문구 안산자락길 이어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조성

기사입력 2016.11.09 15:09 최종수정 2016.11.09 17:21

4.5km(실락어린이공원~옥천암) 전 구간 완공, 이달 12일 개통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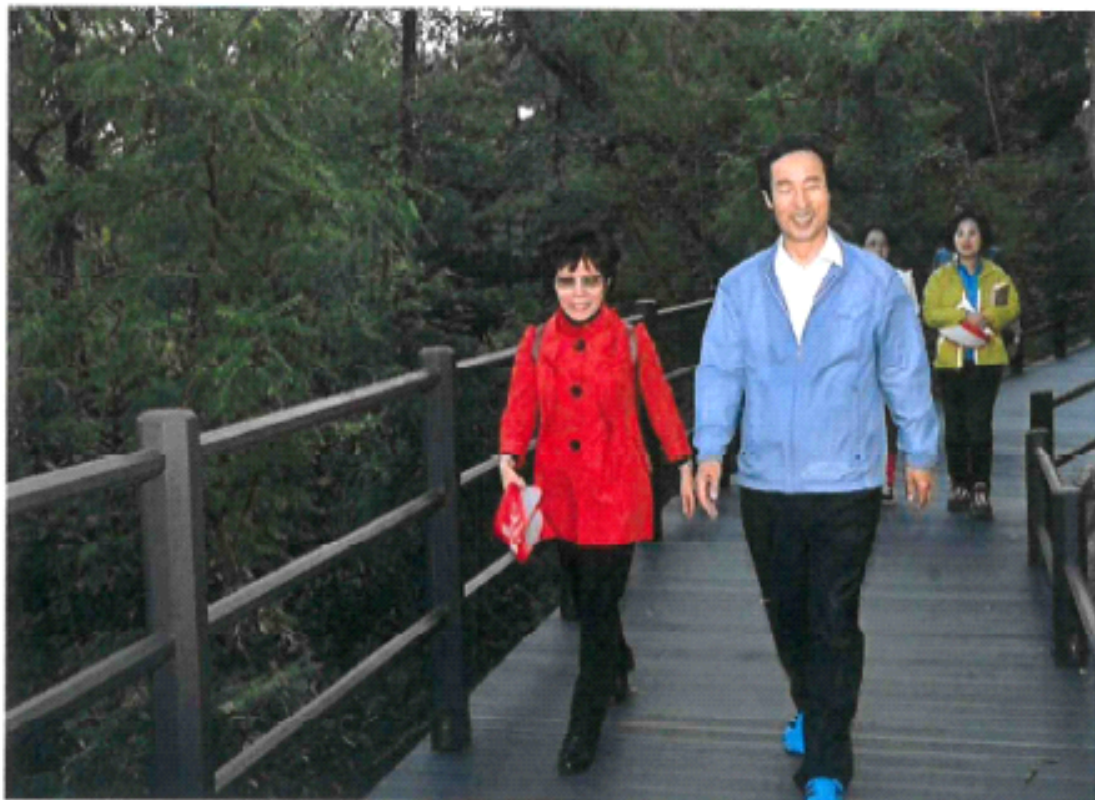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에 안산(鞍山) 자락길에 이은 또 하나의 명품 숲길이 탄생한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12일 장애인, 어르신, 유아, 임산부 등 보행 약자들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을 완공, 개통한다.

구는 실락어린이공원(홍은1동 71)~ 홍록배드민턴장(홍은동 산1-85)과 삼하운수종점(홍은중앙로 170)~ 옥천암(홍지문길 1-38)까지 총 4.5km 구간을 경사도 10% 이내의 길로 만들었다.

바닥에 휠제어나 유모차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4.15km는 평평한 목재 덱(deck)으로, 나머지 구간은 마사토(300㎡)로 조성했다.

또 야외무대, 전망대, 쉼터, 음수대, 화장실을 만들고 안내판을 설치해 자락길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서대문구는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공사를 3구간으로 나눠 진행했다.

먼저 2014년4?9월에 1차 구간(홍록배드민턴장~삼하운수종점) 1.5km를 부분 준공했다.

이어 2차 구간(삼하운수종점~옥천암) 1.8km는 2015년8월, 3차 구간(실락어린이공원~홍록배드민턴장) 1.2km는 2016년6월 공사에 들어가 이번에 동시에 완공을 보게 됐다.

예산은 시비 51억5000만원이 들었다.

특히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맞은편에 위치한 홍제천 변 산책로로 접어들면 서대문구 용은1동 주변으로 한 바퀴를 도는 순환형 구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락길 4.5km에 홍제천 변 구간 1.5km(옥천암~실락어린이공원)를 더해 총 6.0km를 도는데 약 2시간이 소요된다.

이 순환 구간을 이용하다가 인근 포방터시장을 찾아 맛집들을 둘러도 좋다.

이번 자락길 개통은 자연 복원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북새 벽 구간에서 시냇물 맑이 않게 돼 조류가 더 잘 자라고 산림을 훼손하는 '셋길 등산로'도 복구되기 때문이다.

또 이 길에서는 등산객들이 바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자유롭게 둘 수 있어 자연을 제대로 감상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무장애 자락길 개통으로 한층 가까워진 북한산의 아름다움 숲에서 보행 약자를 포함해 남녀노소 누구나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을 것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전 구간 완공을 기념하는 개통 행사가 12일 오후 1시 솔북배드민턴장 옆 야외 무대에서 열린다.

서대문구가 지난 2013년11월 완공한 안산(鞍山) 무장애 자락길도 주말과 휴일에 하루 5000명 이상이 찾는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 전재 배포금지>

프린트하기

'장애인도 편하게 오른다'... 서대문구,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12일 개통

강승훈 기자 (shkang@ajunews.com) | 등록 : 2016-11-09 02:09 | 수정 : 2016-11-09 02:09



곧 개통을 앞둔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을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걷고 있다.[사진=서대문구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대문구에 안산(鞍山) 자락길에 이어 또 하나의 명품 숲길이 탄생한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이달 12일 장애인, 어르신, 유아, 임산부 등 보행 약자들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을 개통한다.

구는 실락어린이공원(홍은1동 71)에서 흥록배드민턴장(홍은동 산1-85)과 삼하운수종점(홍은중로 170)을 거쳐 옥천암(홍지문길 1-38)까지 총 4.5km 구간을 경사도 10% 이내의 길로 만들었다.

바닥에 휠체어나 유모차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4.15km 구간은 평평한 목재데크를, 나머지는 사토(300㎡)로 조성했다. 여기에 야외무대, 전망대, 쉼터, 음수대, 화장실을 만들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이번 자락길 공사는 △2014년 4~9월 흥록배드민턴장~삼하운수종점 1.5km 부분 준공 △삼하운수종점~옥전암 1.8km 2015년 8월 △실락어린이공원~흥록배드민턴장 1.2km 등 3차에 걸쳐 진척됐다. 예산은 시비 51억5000여 만원이 들었다.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맞은편의 흥제천 변 산책로에 접어들면 관내 흥은1동 주변 한 바퀴를 도 순환형 구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분석진 구정장은 "무장애 자락길 개통으로 한층 가까워진 북한산의 아름다운 숲에서 보행약자 포함해 남녀노소 누구나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기사 인쇄하기

특 인 쇄 하 기

[동네방네]서대문구, 북한산에 부상애 자락길 개통

입력시간 | 2016.11.09 14:14 | 정태선 기자

"모두가 함께 누리는 숲"



서대문구는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을 12일 완공 개통한다. 서대문구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대문구가 안산(鞍山) 자락길에 이은 또 하나의 명품 숲길을 만들었다.

서대문구는 장애인, 어르신, 유아, 임산부 등 보행 약자들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오는 12일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을 완공, 개통한다.

구는 실락어린이공원(홍은1동 71)에서 흥복베드민턴장(홍은동 산1-85)과 삼하운수종점(홍은중앙로 170)을 거쳐 옥천암(홍지문길 1-38)까지 총 4.5km 구간을 경사도 10% 이내의 길로 조성했다.

바닥에 휠체어나 유모차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4.15km는 평평한 목재 데크

로, 나머지 구간은 마사도(300㎡)로 조성했다.또 야외무대, 전망대, 쉼터, 음수대, 화장실을 만들고 안내판을 설치해 자락길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서대문구는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공사를 3구간으로 나눠 진행했다. 2014년 4월에 1차 구간(홍록배드민턴장~삼하운수종점) 1.5km를 부분 준공했다. 이어 2차 구간(삼하운수종점~옥천암) 1.8km는 작년 8월, 3차 구간(실락어린이공원·홍록배드민턴장) 1.2km는 2010년 0월 공사에 들어가 이빈에 동시에 완공을 보게 됐다. 예산은 시비 51억5000만 원이 들었다.

특히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맞은편에 위치한 홍제천 변 산책로로 접어들면 서대문구 홍은1동 주변으로 한 바퀴를 도는 순환형 구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락길 4.5km에 홍제천 변 구간 1.5km(옥천암~실락어린이공원)를 더해 총 6.0km를 도는데 약 2시간이 소요된다. 이 순환 구간을 이용하다가 인근 포방터시장을 찾아 맛집들을 둘러도 좋다.

이번 자락길 개통은 자연 복원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목재 데크 구간에서 지면을 밟지 않게 돼 초목이 더 잘 자라고, 산림을 훼손하는 '셋길 등산로'도 복구되기 때문이다.또 이 길에서는 등산객들이 바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자유롭게 둘 수 있어 자연은 제대로 감상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무장애 자락길 개통으로 한층 가까워진 북한산의 아름다운 숲에서 보행 약자를 포함해 남녀노소 누구나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전 구간 완공을 기념하는 개통 행사가 이달 12일 오후 1시 홍록배드민턴장 옆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북한산 자락길 조성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 보행약자와 함께하는 자락길 체험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홍은1동 주민 동호회의 축하 공연도 펼쳐진다.

한편 서대문구가 지난 2013년 11월 완공한 안산(鞍山) 무장애 자락길도 주말과 휴일에 하루 5000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문의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02-330-1396).



서대문구는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을 12일 완공 개통한다. 서대문구 제공.

▶ **관련기사** ◀

- ☞ [포트]서울 단풍명소 북한산
- ☞ 정부, 북한산 위장반입 근절 위한 합동점검 실시
- ☞ 끼류이앤씨, 입직원 100여명 북한산 한마을산행
- ☞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대상에 '북한산 봄이 오는 소리'
- ☞ 북한산-양재천 등에 광견병 미끼 약 '주의'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인쇄하기**

서대문구의 또다른 명소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개 통

【서울=뉴스시스】은대선 기자 = 서대문구에 안산(鞍山) 자락길에 이어 또 하나의 숲길이 생긴다.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오는 12일 장애인, 어르신, 유아, 임산부 등 보행 약자들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이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은 실락어린이공원(홍은1동 71)에서 홍록베드민턴장(홍은동 산1-85)과 삼하운수중점(홍은중앙로 170)을 거쳐 옥천암(홍지문길 1-38)까지 총 4.5km 구간을 말한다.

해당 구간은 경사도 10% 이내의 길로 조성됐다. 또한 바닥에 휠체어나 유모차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4.15km는 평평한 목재 데크(deck)가, 나머지 구간은 마사토(300m)가 깔렸다.

여기에 야외부대, 전망대, 쉼터, 음수대, 화장실을 만들고 안내판을 설치해 자락길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서대문구는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공사를 3구간으로 나눠 진행했다.

우선 2014년 4월 79월에 1차 구간(홍록베드민턴장 - 삼하운수중점) 1.5km를 부분 준공했다.

이어 2차 구간(삼하운수중점 ~ 옥천암) 1.8km는 2015년 8월, 3차 구간(실락어린이공원 ~ 홍록베드민턴장) 1.2km는 2016년 6월 공사에 들어가 이번에 동시에 완공을 보게 됐다.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맞은편에 위치한 홍제천 변 산책로로 걸어들면 서대문구 홍은1동 주변으로 한 바퀴를 도는 순환형 구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락길 4.5km에 홍제천 변 구간 1.5km(옥천암 - 실락어린이공원)를 더해 총 6.0km를 도는데 약 2시간이 소요된다.

공사에는 시비 51억5000만 원이 투입됐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무장애 자락길 개통으로 한층 가까워진 북한산의 아름다운 숲에서 보행 약자를 포함해 남녀노소 누구나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ds1105@newsis.com



서울 서대문구는 인산 자락길에 이어 장에인, 어르신, 유아,임산부 등 보행 약자들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북한산 무장에 자락길'을 완공하고 오는 12월 개통한다.

서대문구 '북한산 무장에 자락길' 12월 개통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인산 자락길에 이어 장에인, 어르신, 유아,임산부 등 보행 약자들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북한산 무장에 자락길'을 완공하고 오는 12월 개통한다.

'북한산 무장에 자락길'은 삼락어만아공원(총면적 71)~충곡체육민

반당(총면적 11~8)~삼학운수공원(총면적 170)~옥천암(총지문길 1~38)까지 총 4.5km 구간을 경시도 10% 이하의 경사로 조성했다.

바닥은 휠체어나 유모차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4.5km는 평평한 목재 덱(deck)으로, 나머지 구간은 마시포(300m)를 앞둔다.

또 야외무대, 전망대,쉼터, 음수대, 화장실을 만들고 안내판을 설치해 자락길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특히 북한산 무장에 자락길 맞은편에 위치한 총채전면 신채교로 접어들면 총은1동 주변으로 한 바퀴를 도는 순환형 구가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락길 4.5km에 총채전면 구간 1.5km(옥천암~삼락어만아공원)를 더하면 총 6.0km, 약 2시간이 소요된다.

임행천기자 <imhcn@naver.com>

서대문구, '북한산 무장에 자락길' 개통

12일 개통...4.5km(실락어린이공원~옥천암) 전 구간 완공

서대문구에 안산(鞍山) 자락길에 이은 또 하나의 명품 숲길인 탄생한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이달 12일 장애인, 어르신, 유아, 임산부 등 보행 약자들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북한산 무장에 자락길'을 완공, 개통한다.

구는 실락어린이공원(흥은1동 71)에서 흥북배드민턴장(흥은동 산1-85)과 삼하운수종점(흥은중앙로 170)을 거쳐 옥천암(흥지문길 1-38)까지 총 4.5km 구간을 경사도 10% 이내의 길로 만들었다.

바닥에 휠체어나 유모차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4.15km는 평평한 목재 데크(deck)으로, 나머지 구간은 마사토(300㎡)로 조성했다.

또 야외무대, 전망대, 쉼터, 음수대, 화장실을 만들고 안내판을 설치해 자락길 이용자의 편의를 높

였다.

서대문구는 북한산 무장에 자락길 공사를 3구간으로 나누어서 진행했다.

먼저 2014년 4월~9월에 1차 구간(흥북배드민턴장~삼하운수종점) 1.5km를 부분 준공했다.

이어 2차 구간(삼하운수종점~옥천암) 1.8km는 2015년 8월, 3차 구간(실락어린이공원~흥북배드민턴장) 1.2km는 2016년 8월 공사에 들어가 이번에 동시에 완공을 보게 됐다.

예산은 시비 51억5천만 원이 들었다.

특히 북한산 무장에 자락길 맞은편에 위치한 흥제천 변 산책로로 접어들면 서대문구 흥은1동 주변으로 한 바퀴를 도는 순환형 구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락길 4.5km에 흥제천 변 구간



1.5km(옥천암~실락어린이공원)를 더해 총 6.0km를 도는데 약 2시간이 소요된다.

이 순환 구간을 이용하다가 인근 포방터시장을 찾아 맛집들을 둘러도 좋다.

이번 자락길 개통은 자연 복원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벽 구간에서 지면을 밟지 않게 돼 초

목이 더 잘 자라고, 산림을 훼손하는 '셋길 등산로'도 복구되기 때문이다.

또 이 길에서는 등산객들이 바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자유롭게 돌 수 있어 자연을 제대로 감상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무장에 자락길 개통으로 한층 가까워

진 북한산의 아름다운 숲에서 보행 약자를 포함해 남녀노소 누구나 몸과 마음의 휴식을 즐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산 무장에 자락길 전 구간 완공을 기념하는 개통 행사가 이달 12일 오후 1시 흥북배드민턴장 옆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북한산 자락길 조성 경과보고, 데이트 코팅, 보행약자와 함께하는 자락길 체험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흥은1동 주민동호회의 축하 공연도 펼쳐진다.

한편 서대문구가 지난 2013년 11월 완공한 안산(鞍山) 무장에 자락길도 주말과 휴일에 하루 5천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문의는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 00-330-1390로 하면된다.

박명순 기자 ms@shinilbo.com

25.7 X 15.1 cm

안산 자락길에 이은 또 하나 명품 숲길

서대문구 '북한산 무장에 자락길' 내일 개통

서울 서대문구에 안산(鞍山) 자락길에 이은 또 하나의 명품 숲길인 탄생한다.

구는 오는 12일 장애인, 어르신, 유아, 임산부 등 보행 약자들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북한산 무장에 자락길'을 개통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실락어린이공원(흥은1동 71)에서 흥북배드민턴장(흥은동 산1-85)과 삼하운수종점(흥은중앙로 170)을 거쳐 옥천암(흥지문길 1-38)까지 총 4.5km 구간을 경사도 10% 이내의 길로 만들었다.

바닥에 휠체어나 유모차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4.15km는 평평한 목재 데크(deck)으

로, 나머지 구간은 마사토(300㎡)로 조성했다.

또 야외무대, 전망대, 쉼터, 음수대, 화장실을 만들고 안내판을 설치해 자락길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서대문구는 북한산 무장에 자락길 공사를 3구간으로 나눠 진행했다.

먼저 2014년 4월~9월에 1차 구간(흥북배드민턴장~삼하운수종점) 1.5km를 부분 준공했다.

이어 2차 구간(삼하운수종점~옥천암) 1.8km는 2015년 8월, 3차 구간(실락어린이공원~흥북배드민턴장) 1.2km는 2016년 6

월 공사에 들어가 이번에 동시에 완공을 보게 됐다.

예산은 시비 51억5천만 원이 들었다.

특히 북한산 무장에 자락길 맞은편에 위치한 흥제천 변 산책로로 접어들면 서대문구 흥은1동 주변으로 한 바퀴를 도는 순환형 구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락길 4.5km에 흥제천 변 구간 1.5km(옥천암~실락어린이공원)를 더해 총 6.0km를 도는데 약 2시간이 소요된다.

한편 서대문구가 지난 2013년 11월 완공한 안산(鞍山) 무장에 자락길도 주말과 휴일에 하루 5000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준철 기자 jdc@shinilbo.co.kr

21.6 X 10.0 cm

서대문구,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개통

보행 약자 위해 경사도 10% 이내 목재 데크·마사토로 조성 야외무대·전망대·쉼터·음수대·안내판·화장실 설치

서대문구에 안산(鰲山) 자락길에 이은 또 하나의 명품 숲길이 탄생한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오는 12일 장애인, 어르신, 유아, 임산부 등 보행 약자들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을 완공, 개통한다.

구는 실락여린이공원(홍은1동 71)에서 홍록배드민턴장(홍은동 산1-85)과 삼하운수종점(홍은중앙로 170)을 거쳐 옥천입(홍지문길 1-38)까지 총 4.5km 구간을 경사도 10% 이내의 길로 만들었다.

바닥에 휠체어나 유모차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4.15km는 평평한 목재 데크(deck)으로, 나머지 구간은 마사토(300㎡)로 조성했다.

또 야외무대, 전망대, 쉼터, 음수대, 화장실을 만들고 안내판을 설치해 자락길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서대문구는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공사를 3구간으로 나눠 진행했다.

먼저 2014년 4~9월에 1차 구간(홍록배드민턴장~삼하운수종점) 1.5km를 부분 준공했다.

이어 2차 구간(삼하운수종점~옥천입) 1.8km는 2015년 8월, 3차 구간

(실락여린이공원~홍록배드민턴장) 1.2km는 2016년 6월 공사에 들어가 이번에 동시에 완공을 보게 됐다.

예산은 시비 51억5,000만원이 들었다. 특히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맞은편에 위치한 홍재천변 산책로로 접어들면 서대문구 홍은1동 주변으로 한 바퀴를 도는 순환형 구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락길 4.5km에 홍재천변 구간 1.5km(옥천입~실락여린이공원)를 더해 총 6.0km를 도는데 약 2시간이 소요된다.

이 순환 구간을 이용하다가 인근 포병터시장을 찾아 맛집들을 둘러도 볼다.

이번 자락길 개통은 자연 복원에 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목재 데크 구

간에서 지반을 밟지 않게 돼 초목이 더 잘 자라고, 산림을 훼손하는 '갓길 등산로'도 복구되기 때문이다.

또 이 길에서는 등산객들이 바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자유롭게 볼 수 있어 자연을 제대로 감상하기에도 안심맞춤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무장애 자락길 개통으로 한층 가까워진 북한산의 아름다운 숲에서 보행 약자를 포함해 남녀노소 누구나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전 구간 완공을 기념하는 개통 행사가 이달 12일 오후 1시 홍록배드민턴장 옆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한편 서대문구가 지난 2013년 11월 완공한 안산(鰲山) 무장애 자락길도 주말과 휴일에 하루 5,000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상길 기자
20.8 X 10.2 cm

휠체어·유모차도 쉽게 북한산 오른다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완공 서대문구, 내일 주민에 개방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한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실락여린이공원~옥천입) 조성 행사가 모두 마무리되고 오는 12일 주민들에게 개방된다.

구는 이날 장애인, 노인, 유아, 임산부 등 보행 약자들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을 완공, 개통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은 실락여린이공원(홍은1동 71)에서 홍록배드민턴장(홍은동 산1-85)과 삼하운수종점(홍은중앙로 170)을 거쳐 옥천입(홍지문길 1-38)까지 이어지는 총 4.5km 구간을 경사도 10% 이내의 길로 만들었다.

특히 바닥에 휠체어나 유모차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4.15km 구간은 평평한 목재 데크(deck)으로, 나머지 구간은 마사토(300㎡)로

조성했다.

또 야외무대, 전망대, 쉼터, 음수대, 화장실을 만들고 안내판을 설치해 자락길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앞서 구는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공사를 3구간으로 나눠 진행했다.

먼저 2014년 4~9월 1차 구간(홍록배드민턴장~삼하운수종점) 1.5km를 부분 준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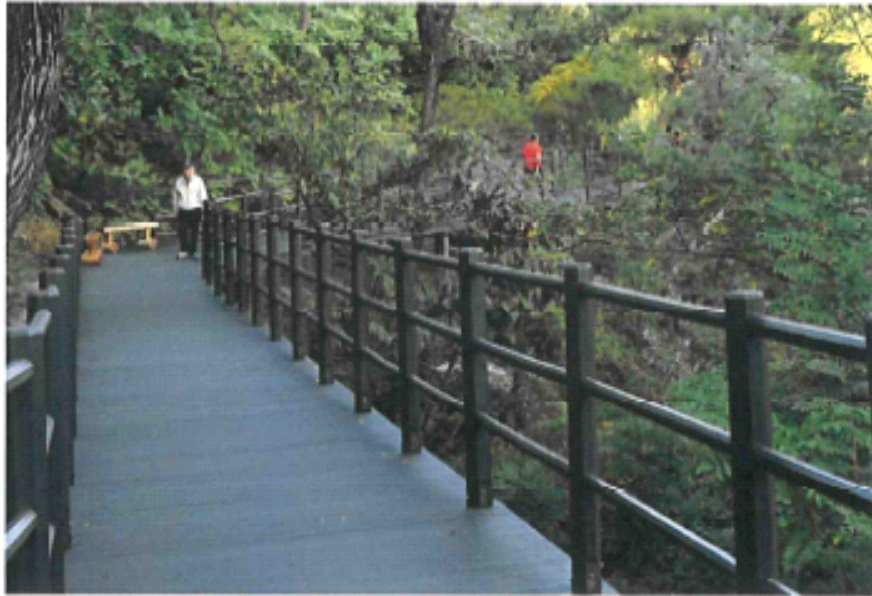
이어 2차 구간(삼하운수종점~옥천입) 1.8km는 2015년 8월, 3차 구간(실락여린이공원~홍록배드민턴장) 1.2km는 2016년 6월 공사에 들어가 이번에 동시에 완공을 보게 됐다. 예산은 시비 51억5,000만원이 들었다.

특히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맞은편에 위치한 홍재천변 산책로로 접어들면 홍은1동 주변으로 한 바퀴를 도는 순환형 구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락길 4.5km에 홍재천변 구간 1.5km(옥천입~실락여린이공원)를 더해 총 6.0km를 도는데 약 2시간이 소요된다.

■이수현 기자 smkh99@siminilbo.co.kr
9.9 X 12.9 cm

서대문 명품 숲길 '북한산 무장에 자락길' 개통



▲서대문구 북한산에 무장에 자락길이 개통돼 또 하나의 명소로 탄생한다

보행 약자 위해 경사도 10% 이내 목재 덩크와 마사토로 조성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대문구에 안산(鞍山) 자락길에 이은 또 하나의 명품 숲길이 탄생한다.

서대문구는 이달 12일 장애인, 어르신, 유아, 임산부 등 보행 약자들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북한산 무장에 자락길'을 완공, 개통한다.

구는 실락어린이공원(홍은1동 71)에서 홍록베드민턴장(홍은동 산1-85)과 삼하운수종점(홍은중앙로 170)을 거쳐 옥천암(홍지문길 1-38)까지 총 4.5km 구간을 경사도 10% 이내의 길로 만들었다.

바닥에 휠체어나 유모차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4.15km는 평평한 목재 덩크(deck)으로, 나머지 구간은 마사토(300㎡)로 조성했다. 또 야외무대, 전망대, 쉼터, 음수대, 화장실을 만들고 안내판을 설치해 자락길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서대문구는 북한산 무장에 자락길 공사를 3구간으로 나눠 진행했다. 먼저 2014년 4월~9월에 1차 구간(홍록베드민턴장~삼하운수종점) 1.5km를 부분 준공했다.

이어 2차 구간(삼하운수종점~옥천암) 1.8km는 2015년 8월, 3차 구간(실락어린이공원~홍록베드민턴장) 1.2km는 2016년 6월 공사에 들어가 이번에 동시에 완공을 보게 됐다. 예산은 시비 51억5천만 원이 들었다. 특히 북한산 무장에 자락길 맞은편에 위치한 홍계천 변 산책로로 접어들면 서대문구 홍은1동 주변으로 한 바퀴를 도는 순환형 구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락길 4.5km에 홍계천 변 구간 1.5km(옥천암~실락어린이공원)를 더해 총 6.0km를 도는데 약 2시간이 소요된다. 이 순환 구간을 이용하다가 인근 포방터시장을 찾아 맛집들을 둘러도 좋다.

이번 자락길 개통은 자연 복원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목재 덩크 구간에서 지면을 밟지 않게 돼 초목이 더 잘 자라고, 산림을 훼손하는 '넷길 등산로'도 복구되기 때문이다. 또 이 길에서는 등산객들이 바닷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자유롭게 둘 수 있어 자연을 제대로 감상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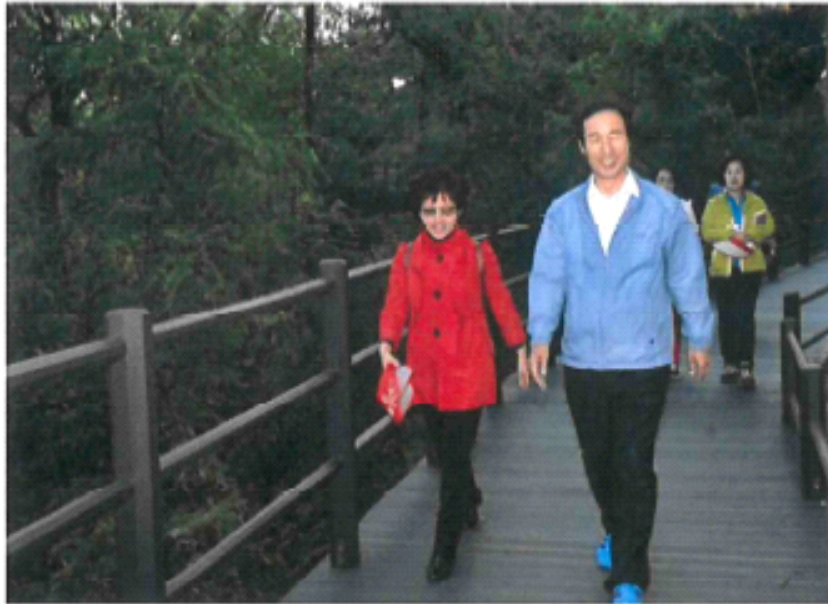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무장에 자락길 개통으로 한층 가까워진 북한산의 아름다운 숲에서 보행 약자를 포함해 남녀노소 누구나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산 무장에 자락길 전 구간 완공을 기념하는 개통 행사가 이달 12일 오후 1시 홍록베드민턴장 옆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북한산 자락길 조성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 보행약자와 함께하는 자락길 체험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홍은1동 주민 동호회의 축하 공연도 펼쳐진다.

한편 서대문구가 지난 2013년 11월 완공한 안산(鞍山) 무장에 자락길도 주말과 휴일에 하루 5천 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서대문구,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개통



▲서대문구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을 문석진 구청장(오른쪽)이 걷고 있다.

4.5km 전 구간 완공, 야외무대, 쉼터, 음수대 등 설치

시사경제신문 정혜인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에 안산(鞍山) 자락길에 이은 또 하나의 명품 숲길인 탄생한다.

구는 12일 성내면, 너르신, 유평, 남산부 등 모험 박사들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나닐 수 있도록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을 완공, 개통한다.

구는 실락이천이공원에서 홍록베드민턴장과 삼하운수종경을 거쳐 옥천암까지 총 4.5km 구간을 경사도 10% 이내의 길로 만들었다.

바닥에 휠체어나 유모차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4.15km는 평평한 목재 덱(deck)으로, 나머지 구간은 마사토(300㎡)로 조성했다.

또 야외무대, 전망대, 쉼터, 음수대, 화장실을 만들고 안내판을 설치해 자락길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서대문구는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공사를 3구간으로 나눠 진행했다.

먼저 2014년 4월 29일에 1차 구간(홍록베드민턴장 삼하운수종경) 1.5km를 부분 준공했다.

이어 2차 구간(삼하운수종경 옥천암) 1.8km는 2015년 8월, 3차 구간(실락이천이공원 홍록베드민턴장) 1.2km는 2016년 6월 공사에 들어가 이번에 동시에 완공을 보게 됐다.

예산은 시비 51억5천만 원이 소요됐다.

특히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맞은편에 위치한 홍제천 변 산책로로 접어들면 서대문구 홍은1동 주변으로 한 바퀴를 도는 순환형 구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락길 4.5km에 홍제천 변 구간 1.5km(옥천암 실락이천이공원)를 더해 총 6.0km를 도는데 약 2시간이 소요된다.

이 순환 구간을 이용하다가 인근 포병터시장을 찾아 맛집들을 둘러도 좋다.

이번 자락길 개통은 자연 복원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목재 덱 구간에서 지면을 밟지 않게 돼 초목이 더 잘 자라고, 산림을 훼손하는 '셋길 등산로'도 복구되기 때문이다.

또 이 길에서는 등산객들이 바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자유롭게 둘 수 있어 자연을 제대로 감상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무장애 자락길 개통으로 함축 가까워진 북한산의 아름다운 숲에서 보행 악사를 포함해 남녀노소 누구나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개통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대문구에 안산(鞍山) 자락길에 이은 또 하나의 명품 숲길이 탄생한다.

서대문구는 이달 12일 장애인, 어르신, 유아, 임산부 등 보행 약자들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을 완공, 개통한다.

구는 실락어린이공원(홍은1동 71)에서 홍록배드민턴장(홍은동 산1-85)과 삼하운수종점(홍은중앙로 170)을 거쳐 옥천암(홍지문길 1-38)까지 총 4.5km 구간을 경사도 10% 이내의 길로 만들었다.

바닥에 휠체어나 유모차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4.15km는 평평한 목재 덱(deck)으로, 나머지 구간은 마사토(300㎡)로 조성했다.

또 야외무대, 전망대, 쉼터, 음수대, 화장실을 만들고 안내판을 설치해 자락길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서대문구는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공사를 3구간으로 나눠 진행했다.

먼저 2014년 4월 29일에 1차 구간(홍록배드민턴장-삼하운수종점) 1.5km를 무분 준공했다.

이어 2차 구간(삼하운수종점-옥천암) 1.8km는 2015년 8월, 3차 구간(실락어린이공원-홍록배드민턴장) 1.2km는 2016년 6월 공사에 들어가 이번에 동시에 완공을 보게 됐다.

예산은 시비 51억5천만 원이 들었다.

특히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맞은편에 위치한 홍계천 변 산책로로 걸어들면 서대문구 홍은1동 주변으로 한 바퀴를 도는 순환형 구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락길 4.5km에 홍계천 변 구간 1.5km(옥천암-실락어린이공원)를 더해 총 6.0km를 도는데 약 2시간이 소요된다.

이 순환 구간을 이용하다가 인근 포방터시장을 찾아 맛집들을 둘러도 좋다.

이번 자락길 개통은 자연 복원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목재 덱 구간에서 지면을 밟지 않게 돼 초목이 더 잘 자라고, 산짐승 훼손하는 '셋길 등산로'도 복구되기 때문이다.

또 이 길에서는 등산객들이 바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자유롭게 둘 수 있어 자연을 제대로 감상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무장애 자락길 개통으로 한층 가까워진 북한산의 아름다운 숲에서 보행 약자를 포함해 남녀노소 누구나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전 구간 완공을 기념하는 개통 행사가 이달 12일 오후 1시 홍록배드민턴장 옆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북한산 자락길 조성 경과보고, 데이프 커팅, 보행아가와 함께하는 자락길 체험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홍은1동 주민 동호회의 축하 공연도 펼쳐진다.

한편 서대문구가 지난 2013년 11월 완공한 안산(鞍山) 무장애 자락길도 주말과 휴일에 하루 5천 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